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장석주
시인

어린 시절, 농사를 짓는 광산 김씨 외가에 홀로 의탁 되어 자랐다. 광산 김씨 문중 큰 제사마다 검은 두루마기 자락을 휘날리며 참석하던 할아버지뻘 친척 중 ‘삼례 양반’이 기억에 남는다. 늘 사람 좋은 웃음을 웃고, 막걸리를 좋아하던 이였다. “그 어른 참 한량이었지.” 그이를 한량이라고 지목하는 말에 비난의 뜻은 없었다.

정약용은 공무에서 물러 나와, 건(巾)을 찢혀 쓰고 울타리를 따라 걷고, 달 아래서 술을 마시며 시를 지었다. 산림과 과수원·채소밭의 고요한 정취에 취해 수레 바퀴의 소음을 잊었다고 했다. 뜻 맞는 벗들과 ‘죽란사’(竹欄社)라는 시모임을 만들어 날마다 모여 시를 돌려 읽고 취하도록 마신 정약용 같은 선비가 한량의 원조였을 테다.

돈 잘 쓰고 풍류를 즐기는 향촌의 유력 계층 젊은이들은 가계 경제에는 결코 보탬이 되지 않았다. 벼을 환대하고 풍류에 더 열심이었던 탓이다. 농작물의 파종이나 수확 같은 노동의 강제를 면제받는 대신 마을 공동

그 많던 한량은 다 어디로 갔을까

체의 의례를 주재하거나 분란 해결에 앞장섰다. 마을마다 한두 명 좁은 있던 그 한량들은 농경시대가 저물고 산업화시대로 넘어가는 변화 속에서 마을 공동체들과 함께 도태되며 자취를 감춘다.

서양에도 한가롭고 세상사에 무관심한 부류가 있었다. ‘덴디’라고 불린 이들은 직업이 없어도 부모의 재산 덕택에 먹고살 걱정이 없던 젊은이들이다. 이들은 일체의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교양과 높은 예술적 안목을 쌓고 세련된 복장으로 군중과 자신을 차별화했다. 멋지게 차려입고 거북을 끌고 파리 산책에 나서던 일단의 사람들. 보들레르는 19세기 서양에 반짝하고 출현한 이들을 ‘영웅주의의 마지막 불꽃’이라고 했다. 이 위대한 문명의 잔재는 모든 것에 침투하고 평준화하는 민주주의의 물결에 밀려났다. 덴디는 꺼져 가는 별처럼, 지는 해처럼, 한 점의 예수를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세상이 바뀌고 나날을 축제처럼 즐기던 한량도 덴디도 사라졌다. 오늘날 신자유주의 체제는 생산 강제와 시대의 시대. 모두에게 노동 의무를 지우는 사회에서 노동으로 자기 부양을 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이 찍히거나 고립무원의 처지를 벗어나기 힘들다. 노동의 실행을 거부하고 외톨이로 사는 이들은 한량의 돌연변이 종이다. 오늘날 외로운 늑대, ‘히키코모리’(引き籠り: 집안에 틀어박혀 지내는 사람), 사이코패스로 명명되는 이들은 간혹 반사회적 공격성으로 섬뜩하게 제 존재감을 드러낸다.

신자유체제는 공동체를 조직으로 전환한다. 오래된 마을 공동체들은 와해되고, 온라인의 그 많은 커뮤니티나 동호회들은 과거의 공동체를 대체한 잔존물이다. 또 한 신자유체제는 세계를 극장에서 공장으로 바꾼다. 놀이와 축제는 추방되고, 노동의 실행만이 가치를 부여받는다. 할로윈이나 크리스마스는 진정한 축제가 아니라 사람의 감정을 뜯뜨게 해서 대량 소비에 나서도록 부추기는 상업주의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한량이나 덴디는 사회적 생산의 유용성 대신에 유희를 선택한다. 그들은 관조적인 휴식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다. 한량들이 거간꾼이나 정치 모리배로 타락한 뒤 소멸되면서 우리는 한량과 함께 공동체의 존재자를 잃었다. 호걸스럽게 노닐던 한량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우리 곁에서 사라진 한량들이 그림자. 새들의 지저귀고 계곡 물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매화 향기에 취해 시를 짓던 이들이 살던 과거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다.

한량들이 누리 여유와 한가로움의 가치를 되돌아보고 ‘생산 강제에 속박당하는 삶의 압박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를 살펴보자는 것이다. 한량들이 맡던 공동체의 존재자들이 사라지자, 사회 갈등은 더 날카로워지고 삶은 속담 속에서 더 적박해졌다. 우리는 놀이가 아니라 컴퓨터 게임에 더 몰입하고, 연애가 아니라 포르노에 더 빠지며, 삶의 충족 대신에 쾌락과 말초적 흥분을 추구하는 시대로 들어섰다. 한가함과 여유를 압살하고 자발적으로 노동의 강제에 휘말린 오늘날의 위기는 결국 우리의 책임이 아닐까?

종교칼럼



황성호
신부
광주가톨릭사회복지회 부국장

우리는 영상이나 책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얻게 된다. 얻은 정보는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몰랐던 것을 알아 지식이 쌓기도 하고 반복되고 지치는 일상에 생기를 불어넣기도 한다. 때론 삶을 새롭게 하여 보다 더 나은 삶으로 변화시키기도 한다.

최근 좋은 영상을 보았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사회학 교수인 샘 리처드(Sam Richards) 박사의 강연였다. 그의 강의는 미국 전역에서 수백 명이 넘는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강의의 주제는 K-pop 스타인 방탄소년단과 한국 드라마 등의 문화콘텐츠였다. 영상을 시청하는데, 샘 리처드 교수의 의미심장한 말이 마음에 와 닿았다. “대학을 다니는 이유는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를 배우는 것이다”라는 말이었다.

그것은 많은 질문을 던지게 하는 말이었다. 질문을 던지는 것은 모르기 때문이고, 해답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철학을 비롯한 수많은 학문들은 어떤 현상

이유

들에 대해 사고(思考)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사고는 왜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에 있어서 질문하는 비중은 중요하다.

존재의 이유, 삶의 이유, 신앙의 이유를 알기 위해 하는 질문도 중요하다. 그래서 샘 리처드의 말은 존재와 삶과 신앙의 이유를 찾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질문이라 생각한다.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앞으로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 각자 다른 인생의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복음서에서 예수의 말씀은 항상 우리 존재의 이유를 묻게 하고,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지를 묻게 한다. 구름을 보고 비가 올지를 예측하고, 불어오는 바람을 통해 더워지겠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이 시대를 어찌하여 풀이할 줄 모르는지 강하게 질타하신다.(루카 복음 12장 54절-59절)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높은가?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 첫째이며 누가 주님의 사랑을 가득 받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면서 논쟁을 부추겼던 권력과 탐욕의 내적 질문들이었다.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서로를 위해 나누어야 하는 제자들이 관심을 권력과 욕심에 두고 있으니, 존재의 이유, 삶의 이유, 예수를 따르는 신앙의 이유도 망각했던 것이다.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경쟁하면서 말이다.

그래서 필자는 “대학을 다니는 이유는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를 배우는 것이다”라는 샘 리처드의 말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관심을 하느님의 뜻에 두기 위해서이다”라고 바꾸어 표현하고 싶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곧 나의 존재가 하느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는지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잊고 산다.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존재하면서도 존재를 망각해 버리고, 살면서도 왜 사는지 그 이유를 잊어버린다.

창조 때 인간의 존재는 은총 가득하며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는 하느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 기쁨과 행복이 가득했던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이런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할 우리의 소중한 존재가 미움받고, 차별과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천박한 자본주의에 짓눌리고, 멈추지 않는 과도한 소비주의의 풍조와 경쟁사회의 노예가 되어 버렸다. 왜냐하면 존재와 삶과 신앙의 이유에 대해서 묻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존재의 이유, 삶의 이유, 신앙의 이유를 우리에게 사랑과 회생으로 보여주었다. 낮추고 기다리면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자기 존재를 아는 것임을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내 존재의 이유, 내 삶의 이유, 그리고 믿는다면 내 신앙의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 것이 공정이다

가장 높게 나왔고 그중 취업·승진 기회의 불평등이 68.4%로 1위를 차지하였다. 이를 방증하기라도 하듯 여전히 언론에서는 채용 비리에 대한 기사가 곳곳에서 흘러나온다.

흔히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고 한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에 있다. ‘엄마 잔스, 아빠 잔스’ 앞에서 둘러리가 될 줄도 모르고 취업문을 두드린 청년들의 절망의 목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더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난이 매우 심각한 시대에서 많은 청년들이 바라는 직장 중 하나인 공직은 더더욱 그렇다.

각계각층의 근절 노력에도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채용 비리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있다면 얼마나 채용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일이 어렵고 힘든 일인지 가늠된다.

역사적 순간마다 쉽고 편한 일보다 어렵고 힘든 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선택해 온 광주가 이번에도 앞장섰다. 과거 선출직 단체장의 전리품으로 여겨지던 채용 과정의 부정을 과감히 내던지고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2013년부터 청원경찰 채용에서 기존 서류 전형과 면접을 통해서만 선발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필기시험을 도입하여 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다. 인사 청탁과 외부 개입이라는 이른바 ‘뺨’이 통하지 않는 엄정한 시스템을 확립하여 채용 분야에 혁신을 불어넣은 것이다.

혁신의 바람은 민선 7기에 들어서 더욱 세차게 휘몰아치고 있다. 2019년부터 광주시 산하 29개 공공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해오던 채용 시험을 시가 주관하

여 동일한 날짜에 동시에 필기시험을 통하여 선발하는 공공기관 직원 통합 채용을 실시하였다. 면접에서도 외부 면접관의 비율을 80%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등 공정성을 강화하였다.

올해부터는 공무원 통합 채용도 시작하였다. 기존에 각 부서별로 진행되었던 공무원 채용을 인사 부서가 주관하여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격 요건, 채용 절차 등에서 일관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상·하반기로 연 2회 통합해 실시하고 있다. 또한 면접에서 출신 학교, 출신 지역 등 일체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을 도입해 불합리한 차별과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 선발로 이어지고 있다. 더 나아가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광주시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오는 30일과 11월 13일, 광주시 하반기 공무원직 채용과 공공기관 통합 채용 필기시험이 예정되어 있다. 절박한 심정으로 시험장 문에 들어설 이들의 표정이 벌써부터 눈앞에 어른거린다. 늦은 밤, 남들이 잠을 자며 꿈을 꾸는 시간에도 두 눈을 비벼 가며 꿈을 이루기 위해 지새웠을 고되고 힘겨운 하루도 함께 그려진다.

시험을 마치고 모두가 ‘합격’이라는 결과를 손에 쥌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이들에게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얻을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만은 확인시켜주고 싶다. 공정이라는 두 글자를 마음에 새기며 공직 사회에서부터 공정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것을 다시금 다짐한다.

社說

잘은 ‘SRF 갈등’ 정부 무대책이 원인이다

SRF(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를 둘러싸고 전남 지역 자치단체와 사업자 및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나주 혁신도시에 이어 이번에는 영광에서도 자치단체와 사업자 간 갈등이 법정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SRF는 생활폐기물을 태워 만든 고형연료인데, 이를 연료로 하는 열병합발전소는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으로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한다.

우선 나주시는 최근 한국난방공사가 혁신도시에 운영 중인 SRF열병합발전소의 SRF 사용허가를 취소하면서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나주시는 사업 개시 항소심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난방공사가 발전소를 가동한 데다 품질기준을 위반한 SRF 2만t을 소각했다는 이유를 사용허가 취소 근거로 들고 있다. 반면 난방공사는 지난 4월 1심 재판에서 승소한데 따라 가동했으며, 설혹 SRF 품질이 부적합하더라도 개선명령 같은 처분을 해야 하는데 사용허가 취소는 과도하다며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제기 등 법적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영광에선 흥농읍에 건설 중인 SRF발전소 공사가 영광군의 SRF 사용 불허가로 중단됐다. 영광SRF발전소는 2017년 인허가를 마치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제기되자 지난해 영광군이 사용을 불허한 것이다. 이에 사업자 측은 행정소송으로 맞서 오다가 지난 14일 영광군이 또다시 불허 처분을 내리자 민사소송과 구상권 청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SRF를 둘러싸고 갈등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미흡한 허가 기준과 정부 부처 간 협조체계가 부실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로 인해 ‘허가-민원-특소 혹은 중지-법적분쟁’이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SRF를 권장했다가 부처 간 불협화음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이 취소되자 입장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SRF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이 같은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영주택 특혜 더 이상 안 된다” 한목소리

나주 혁신도시 내 부영CC(부영골프장) 용도변경안에 대해 관련 공공기관 등이 일제히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귀추가 주목된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혁신도시 내 개발 밀도를 높이는 용도지역 변경을 최소화하라”고 요구했으며 전남교육청도 “혁신도시 내 교육시설 부지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

최근 나주시는 ‘부영CC 잔여부지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용도계획 변경 추진 현황’을 나주시의회에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부영주택 측은 부영골프장의 일부 면적(40만㎡)을 한국에너지공단 부지로 기부하고 자연녹지 용도의 골프장 잔여지(35만㎡)를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업자 측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혁신도시 내 개발밀도를 높이는 용도지역 변경을 최소화하라”고 요구했다. 사실상 아파트 개발부지를 대폭 줄이라는 의미다. 전남교육청도 기존 혁신도시 내 교육시설로는 신규 학생 배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사업자 측이 계획한 유치원·초등학교 외에도 중·고교 부지 3만㎡를 포함해 모두 4만5000㎡를 교육시설 부지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주민과 시민단체는 물론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공공기관까지 한목소리로 부영주택에 대한 특혜를 경계하고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부영 주택 측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시는 특히 혁신도시에 부영 측이 추가로 신선헌 학교 부지를 제공하는 등 공공 기여를 최대한 이끌어 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최소한 그렇게 해야만 ‘나주시가 왜 사업자 측에 끌려다니느냐’는 힐난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無等鼓

그리스·로마 신화에는 신의 영역인 하늘과 태양을 넘본 인간이 나온다. ‘이카루스’와 ‘벨레로폰’이다. 신화는 신의 권위에 도전한 이들에게 벌을 내림으로써 인류의 오만함을 경계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미노스왕의 미움을 사 크레타 섬의 미궁에 갇힌 이카루스는 아버지 다이달로스의 도움으로 섬을 탈출한다. 아버지가 새의 깃털을 모아 밀랍으로 붙여 만들어 준 날개를 어깨에 단 뒤 바다 위를 날 수 있었던

때문에 밀랍이 녹을 수 있으니 조심하고, 너무 낮으면 바다의 습기 때문

황대 고삐로 하늘을 나는 페가수스(날개 달린 천마)를 길들인 뒤, 괴물 키메라를 퇴치한 용맹한 전사였다. 왕에게 영웅 대접을 받는 등 인기가 치솟자 벨레로폰은 자기가 신이라도 되는 양 착각에 빠졌다. 신의 세계가 금공했던 벨레로폰은 페가수

스를 타고 천계에 오르려고 한다. 이 순간 제우스는 등에(팔파리)를 보내 페가수스를 물게 하니, 천마(天馬)가 놀라 날뛰면서 벨레로폰은 말에서 떨어지고 만다. 덤불 위로 떨어진 벨레로폰은 눈이 멀고 발을 절뚝이며 평생을 불구로 살아야 했다.

이카루스와 벨레로폰의 신화는 이후 수많은 문학작품에 오만과 교만의 상징으로 길들인다. 이 신화가 주는 징벌적 교훈(?)은 기원전인 당시 신 중심의 세계관에서

을 천년 이상 이어왔다. 하지만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신 중심 가치관이

바뀐에 따라 이카루스는 ‘오만한 자’에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려는 자’로 해석된다. 이후 현재까지도 이카루스는 우리에게 불가능을 극복하려는 희망과 도전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게 된다.

대한민국 자체 기술로 완성된 최초의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궤도 안착에는 실패했지만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은 내년 5월 다시 도전에 나선다. 반드시 우주 강국의 비상을 실현하리라 믿는다. /채희송 사회부장 chae@

기고



김종화
광주시 인사정책관

토끼와 거북이가 한 마을에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둘은 달리기 경주를 하였다. 처음에 토끼가 압도적으로 앞서자 방심을 하고 낮잠을 잤고, 거북이는 그동안 열심히 기어서 결승선에 먼저 도착한다. 어릴 적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솝 우화 ‘토끼와 거북이’의 줄거리다. 자만이 실패의 원인이 된다는 것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다.

하지만 어른이 된 후 다시 읽어보는 동화는 우리의 입맛을 쓰게 한다.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는 과연 공정한 경기였을까? 만약 토끼가 잠드는 실수(거북이로서는 요행)가 없었다면 거북이가 결승선을 먼저 통과할 수 있었을까? 애초에 답이 정해진, 결과가 불 보듯 뻔한 경기에서 둘을 같은 트랙의 레인 위에 세워놓았던 것은 아닐까? 하고 공정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참 힘들다는 이야기가 술하게 들려온다. 청년들을 가장 아프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유심히 들여다보면 ‘공정’이라는 단어를 어렵지 않게 마주할 수 있다. 어느 기관에서 청년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불평등 문제가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4 체 육 부 220-0621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